

## 전당재단 인사 파행... 추진단은 '거수기'였다

총회 의사록 토론·심의 없어  
임원 추천 주체인 추진단 역할  
문제부 인사 승인절차에 그쳐

문화전당재단 인사 파행과 관련 재단 설립과 임원 추천의 주체가 되어 할 설립추진단(추진단)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정한 인사들이 형식적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추진단에 참여한 위원들과 문화전당재단으로부터 '창립총회 의사록'(2022년 1월 10일자)을 전달받은 이병훈 의원실 담당자, 문제부 차관을 면담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임원 추천의 실질적 주체인 추진단의 역할은 문제부가 제시한 임원들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문제부는 재단 인사 파행 관련 의혹이 일자 참고자료를 통해 '임원 임명절차는 아특별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화전당재단 설립 절차'는 추진단이 정관 작성, 정관에 의거한 임원 추천을 하기로 명사돼 있다. 다시 말해 추진단은 임원 선임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진단에 참여했던 모 위원은 8일 "창립총회가 열린 지난달 10일 임원진에 대한 간단한 약력만을 제공받았을 뿐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나 심의는 없었다"며 "이전의 설립 관련 회의에서도 선임 이사장과 사장 등 임원 추천에 관한 얘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에 대한 회의를 주로 했다"며 "임원 추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전당으로부터 '창립총회 의사록'을 전달받은 이병훈 의원실 담당자도 "회의록에는 임원들의

약력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어떤 정보도 회의자료로 제공되지 않았고 구두로 설명한 기록이라든지 위원들의 의견이 오고간 기록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록에는 "정관(안), 이사장·사장·이사·감사 등의 명단이 기재된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회 운영규정(안)', '직제규정(안)', '인사규정(안)', '보수규정(안)', '회계규정(안)'과,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이사회소집통보서'와 내용 없이 날인만 하게 돼 있는 '이사회 의사록 양식', '서면결의서' 양식 등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문제부가 창립총회 당일 추진단에 임원들의 약력 등을 담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임원 선임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문제부 제1차관을 면담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정당화를위한시민연대' 관계자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문제부가 창립총회 당일 추진단에 선임 결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했으며 추진단이 선임에 동의했기에 정상적인 추천 절차로 이해한다는 뜻을 시민단체에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문제부 관계자는 "문화전당재단은 아특별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광주지역 문화계와 광주시 등의 추천을 받아 인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조성지원포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전당운영정당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임명된 당사자들에게 '현명한 처신'을 당부했다. 시민협의체는 "공정해야 할 인사에 스스로 불공정을 조장해 시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광주시민 전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준 이번 당사자들은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현명하게 처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차준환 '4회전 점프' 올림픽 남 쇼트 4위



차준환(고려대)이 8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경기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차준환은 이날 총점 99.51점을 기록해 출전 선수 29명 가운데 전체 4위로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진출 티켓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남자 피겨 역사를 다시 썼다. >관련기사 18면 /연합뉴스

## 코로나 대유행에도 지방선거 입지자 출판기념회 '붓물'

광주·전남 '뒤틀림'으로 둔  
민주당 인사들이 더 극성

6·1 지방선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2월 한 달간 무더기로 출판 기념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적절성 시비를 놓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일 90일 전(3월 3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탓에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이력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합법적으로 알리는 방안으

로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강당식 출판기념회'를 꼭 개최해야만 하는지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광주·전남을 '뒤틀림'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은 "3·9 대선 전까지 대선에만 전념해 달라"며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도 미뤄졌지만, 입지자들은 '뒤틀림' 지방권력 쟁취를 위해 앞다퉈 들쭉날쭉하는 형국이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 8명이 이번 주부터 지역구 예술회관·체육관·북

지관·학교 등지에서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조선부터 3선 의원까지 이달 중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8명의 도의원은 모두 시장·군수 출마를 준비 중이다. 무소속 인사 1명을 제외한 7명의 도의원은 김한중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8명 외에도 58명의 전체 도의원 가운데 17명 안팎이 기초단체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출판 기념회 일정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남도 퇴직 공무원 등 원의 인사들도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이어서 3월 초까지 도내에서 50회 안팎의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열릴 것으로 지

역정치권은 보고 있다.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을 두고 정치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출마 예정자 일부는 "선거를 앞두고 여는 출판기념회가 뭐냐. 자신의 정책과 이력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행사 아니냐"며 "나도 출판회 개최를 준비해오다 코로나 비상에, 대선 또한 초박빙이라서 출판회 개최를 포기했다"고 에둘러 쓴소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인 입지자 대다수가 정치신인이기보다 지역에서 기록권을 쥐고 있는 분"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  
3000명대 돌파 초읽기

광주·전남에서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하루 3000명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9일부터 '확진자 격리제도'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통제권을 벗어난 대규모 확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241명, 전남 1015명 등 2256명이 신규 확진됐다. 앞서 7일에도 광주 1209명, 전남 1133명 등 23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는 이날도 0시-오후 2시 사이 13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설 명절 연휴 이후 광주·전남 각각 1000명대, 광주와 전남을 합쳐서 2000명대 일일 확진자를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복지시설, 콜센터, 백화점 등의 집단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확진자 접촉 관련이 절반이 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족 간 지인간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도 목포(202명)·여수(125명)·순천(182명)·나주(98명)·광양(89명)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무안 71명, 영암 35명, 영광 25명, 화순 22명, 담양·곡성 각 21명, 고흥·해남 각 18명, 진도 13명, 구례·보성·강진·신안 각 12명, 장흥 10명, 함평 8명, 완도 6명, 장성 3명 등 설 연휴 이후 연일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마지막 실종자 수습 총력 >6면



KIA 타이거즈 함평 스프링캠프 >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